

#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산층 주거난 해결	파리
문화·관광	5	지역 문화유산 2만여 개 정보 담은 온라인 DB 구축	로스앤젤레스
	8	베이징 식물원·이허위안 등 25개 ‘역사 명원’ 선정	베이징
산업·경제	9	소규모 창업자·사업장 지원 강화 종합계획 발표	뉴욕
사회·복지	11	심장마비 응급조치에 활용하는 ‘심폐소생술 앱’ 무료 제공	로스앤젤레스
	13	전국서 “임금 남녀차별 관행 없애라” 대대적 행사	베를린
환경·안전	15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치 20% 초과 달성	샌프란시스코
	17	교토역 주변에 외국인·관광객 긴급피난 유도표지 설치	교토
도시교통	18	“교통사고 예방에 의문”...교통 단속카메라 단계 철거	시카고
도시계획·주택	19	공공조명 혁신사례 체험 ‘LED 조명 전시거리’ 개장	베를린

## ‘빈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 중산층 주거난 해결

임대료 치솟아 살 집 못 구한 중산층에 비어 있는 4만 채 임대

프랑스 파리시 / 도시계획·주택

- 파리시 안 이달고 시장은 2015년 3월 16~17일 시의회에 중산층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Multiloc’ 사업을 제안함. ‘Multiloc’ 사업은 파리시의 부동산 임대료가 치솟으면서 주택을 구하지 못한 중산층이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현상과 파리 시내에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빈 주택이 발생한 현상을 연결해, 중산층이 빈 주택을 임대해 살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프로그램임.
- 안 이달고 시장의 연간 주택 1만 호 공급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파리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이 사업은 그 중 하나로, 주택 소유자가 장기간 살지 않은 채 파리에 남겨둔 빈 주택을 모집하여 활용하는 프로그램임.
  - 예를 들어 은퇴한 노인들이 자연환경이 좋은 지방에 내려가 살면서 파리에 머물 경우를 대비해 집을 비어있는 상태로 남겨 둔 경우, 혹은 장기간 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 있음.

### 이달고 시장 “중산층, 파리서 살 수 있도록 시가 나서야”

- 파리시는 오랫동안 집주인이 살지 않는 빈 주택이 4만 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함. 이러한 현상은 주택 소유자들이 남에게 집을 임대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발생하였음. 파리시는 ‘Multiloc’ 사업으로 비어있는 주택들을 모집하여, 민간영역 사업자와 함께 발전된 형태의 주택임대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음.
  - 안 이달고 시장은 빈곤층 공공임대주택과 주변적 중산층(중하층) 민간부문 임대용 주택을 연속선상에서 생각하고, 시에서 대응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힘.
  - 예를 들어 중간 수준의 주택에 자녀 한 명이 있고 월 소득이 3,000유로(약 355만 원) 정도인 부부가 파리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파리시는 주택 관련 공공부

문과 민간 부문의 협력을 이끌어야 함.

- 파리시는 이 사업을 담당할 행정관 1명을 공모하고, 사업 홍보·진행상황·관련 기관 감독을 담당시킬 예정임. 또한 임대용 주택을 모집할 담당자도 공모하고, 모집된 주택을 부동산 임대업체에서 검사하는 데 관리하고, 관련 통계 작성도 담당시킬 예정임.
  - 파리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부동산 임대업체와 부동산 관리 협약을 맺을 계획임. 이 협약으로 업체는 사업 담당자가 모집한 주택의 상태를 자체적으로 검사하고 임대시장에 내놓을 것이며, 이후 주택 관리도 자율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임.
  - 참여 업체는 주택 한 채당 1,000유로(약 118만원)의 보조금을 받게 되며, 6개월 이상 된 주택의 임대 계약 성사에는 보조금이 1,200유로(약 142만 원)로 상향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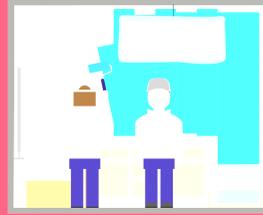
#### **임대시장 평균가보다 20% 저렴한 월세로 공급 추진**

- ‘Multiloc’ 사업은 비어 있는 주택이 부동산 임대 시장에 나오도록 촉진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이렇게 나온 주택은 각 동의 평균 임대가격(주: 파리시에서는 월세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평균 임대료를 확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보다 20% 낮은 금액으로 책정할 예정임.
  - 이 사업의 대상은 중간 가격대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소득 기준보다 소득이 낮은 중산층(중하층) 가구임. 구체적으로 연소득이 3인 가구 기준으로 5만 9,704유로(약 7,100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7만 1,514유로(약 8,500만 원)보다 소득이 낮아야 함.
  - 또한 가족 구성 형태(결혼 여부, 양부모·편부모 여부, 자녀 여부 등)를 가리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파리시는 집주인에게 보증을 확실히 제공하고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빈 주택 매물을 순환시키는 역할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임.

## MULTILOC, 빈 주택을 위한 원-원 사업



시장가격보다 20% 싸게 임대  
=  
중산층과 청년활동층을 위한  
주택 접근성



한편, 파리시는 소유자를 지원  
=  
공사작업 등의 재정 보증 지원

빈 주택  
이제 그만!

'Multiloc' 사업 안내 그래픽

### 사업 참여 집주인에 약 238만 원 제공 '임차인·임대인 모두 원원'

- 파리시 주택 담당 부시장은 'Multiloc' 사업에 참여하는 집주인에게는 2,000유로(약 238만 원)를 제공하는 등 보증금과 촉진책의 세부사항을 설명함.
- 월세를 못 받거나 일상적인 관리비용·주택 손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임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파리시는 책임지고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것임.
- 임대주택 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임대계약 전에 의무적으로 주택 상태에 관한 안전진단을 시행해야 함. 또한 진단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주고, 화재경보기 설치에 보조금을 지급할 것임.
- 임대계약 전에 주택보수 공사나 미장 공사를 시행하면 2,500유로(약 297만 원)까지 지원해 줌.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을 임대하기 위해 공사하는 경우에는 주택 진단 시 최대 7,500유로(약 893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원 금액은 매년 파리시의회에서 파리 시장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이 보조금은 파리에 공사시행 증명서류와 담당 임대업체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급 받을 수 있음.
- 파리는 'Multiloc' 사업을 위해 1주택당 6,000~1만 4,000유로(약 714만~1,667만원) 사이의 금액을 부담해야 함. 이 금액은 주택의 면적과 상태, 6개월 이상 비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임대계약 체결 전에 다르게 결정됨.
- 파리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5월 중에 부동산 중개업체를 선정하고, 올해 여름 중에 협약을 맺을 계획임. 이 사업으로 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를 희망하는 사람은 개설된 대표 전화번호를 이용하면 됨.

[http://www.paris.fr/accueil/logement/conseil-de-paris-pour-le-logement-des-classes-moyennes-la-ville-lance-multiloc/rub\\_9649\\_actu\\_154198\\_port\\_23745](http://www.paris.fr/accueil/logement/conseil-de-paris-pour-le-logement-des-classes-moyennes-la-ville-lance-multiloc/rub_9649_actu_154198_port_23745)

## 문화·관광

### 지역 문화유산 2만여 개 정보 담은 온라인 DB 구축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 문화·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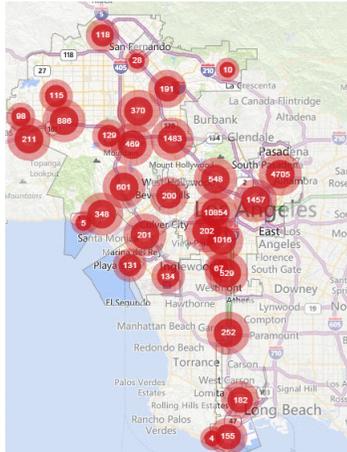
- 로스앤젤레스시는 도시의 중요한 역사적 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지난 15년 동안 게티 보존 연구소(the Getty Conservation institute)와 협력하여 지역 내 역사적인 장소들의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히스토리크 플레이스 엘에이(Historic Places LA)’라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제공하기로 함.



히스토리크플레이스엘에이 홈페이지

- ‘히스토리크 플레이스 엘에이’ 데이터베이스는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처음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 및 관리 시스템으로 지역 내 사회·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지구, 교량, 공원 등 약 2만 개가 넘는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로 표현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해 제공함.
  -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자원을 조사하였는데, 첫 번째로는 현재 국가 지정(the National Register), 도시 역사문화 기념물(City Historic-Cultural Monuments), 역사 보존구역(Historic Preservation Overlay Zones) 등에 지정된 자원을 포함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정되는 자원도 포함시킬 계획임.

- 또한 ‘서베이 엘에이(Survey LA)’ 등과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자원을 포함하였으며, 2017년까지 설문조사가 계획되어 있어 추후에 시행되는 조사결과를 추가적으로 반영할 계획임. 서베이 엘에이에서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은 커뮤니티 재개발 공사(the Community Redevelopment Agency)에 의해 완성된 최근 설문조사들의 결과를 통해 보완할 계획임.



‘히스토리크 플레이스 엘에이’ 지도

### 역사문화기념물· 역사보존구역 등 6가지로 대분류

-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문화유산 목록들은 지도상으로 시의 경계 안에 위치별로 표시되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며, 역사적인 사진 및 자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명칭 또는 분류별 검색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대분류가 되어 있음.
  - 로스앤젤레스 역사문화기념물(Los Angeles Historic Cultural Monuments) : 시가 지정한 역사적 장소
  - 로스앤젤레스 역사보존구역(Los Angeles Historic Preservation Overlay Zones) : 시가 지정한 역사적 지구
  - 국가 지정 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 : 국가 지정 사적으로 등록된 개별 자원이나 지구로서 시 경계 안에 위치한 자원

- 잠재적 역사 다세대주택지(Potential Historic Multi-Family Residences) :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방갈로, 아파트 등 다양한 종류의 다세대주택
  - 잠재적 주거역사지(Potential Residential Historic Districts) : 잠재적으로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주거지역
  - 국가 역사기념물(National Historic Landmark) : 시 경계 안에 있는 국가적 역사 기념물
- ‘히스토리크 플레이스 엘에이’ 데이터는 기존에 지정된 자원들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자원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른 데이터베이스보다 포괄적인 데이터로 볼 수 있음.
- 로스앤젤레스시 도시계획부는 토지계획 및 개발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마스(ZIMAS, Zone Information Map Access System)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 도시·주·연방의 역사보존 프로그램을 통해 지정된 역사적인 자원에 대한 기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음.
- 이번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시민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 부동산 개발자, 관광객, 학생 등 도시의 역사적 자원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에게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됨.

[http://www.citylab.com/design/2015/02/a-dreamy-new-database-for-la-architecture-nerds/385976/?utm\\_source=SFTwitter](http://www.citylab.com/design/2015/02/a-dreamy-new-database-for-la-architecture-nerds/385976/?utm_source=SFTwitter)

<http://www.historicplacesla.org/>

# 베이징 식물원·이허위안 등 25개 ‘역사 명원’ 선정

중국 베이징시 / 문화·관광

- 베이징시는 2015년 3월 9일 텐탄(天壇, 천단), 이허위안(頤和園, 이화원), 베이징 식물원 등 총 25곳의 역사 명원(名園, 이름난 정원) 선정 결과를 발표함. 5일 동안 전화, 이메일 등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됨.
- 베이징에는 역사문화 정원이 많이 있지만, 베이징시가 역사 명원을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번 발표는 5년 동안 베이징 시내에 현존하는 1,000여 곳의 역사 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함.

## 정부가 직접 선정... 공왕푸·순친왕 화원 등 사유지도 포함

- ‘베이징 역사 명원’은 베이징 시내의 뚜렷한 역사문화 가치를 지닌, 전통적인 원림 조성 기술이 녹아있는 정원을 의미함. 역사 명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첫째, 1949년 이전에 형성된 원림 또는 역사적으로 경치를 관람해 온 지역
  - 둘째, 베이징 시내에 있고. 역사적 특정시기 내 또는 어떤 지역 내에서 도시변화와 문화예술 발전에 영향을 끼친 원림
  - 셋째, 원림 양식과 원림의 요소가 현존해야 함.
- ‘베이징 역사 명원’ 선정은 역사적인 원림을 더욱 잘 보호하는 것이 목적임. 베이징시는 보호대상을 황가(皇家)원림, 사가(私家)원림(공왕푸 화원·순친왕 화원 등), 종묘(宗廟)원림 등 유형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관리 보호 조치를 제정할 계획임.
  - 시는 베이징 역사 명원의 구체적인 보호 관리방법을 마련하고 있음. 역사원림은 정자나 누각 등과 같은 고건축을 보호해야 하며, 전체적인 산수 구성과 원림 요소에 가치를 매겨 섬세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

(출처: 2015-03-10, 北京日报)

# 산업·경제

## 소규모 창업자·사업장 지원 강화 종합계획 발표

미국 뉴욕시 / 산업·경제

- 뉴욕시는 소규모 창업자와 사업장에 대한 세금 및 기타 규제로 사업 운영에 전반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종합계획인 ‘소기업 우선(Small Business First)’ 프로그램을 수립함. 사업 운영을 위한 규제환경의 완화와 정부의 지원 강화가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임.
-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허가절차의 간소화, 사업운영비 절약방안, 제도적 지원 등이 있으며 2015년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이번 계획과 관련하여 약 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 허가절차 간소화, 사업비 절약방안, 제도적 지원이 핵심

- 아래 표에서 소규모 사업장의 연도별 창업 및 사업체 운영 데이터를 보면, 뉴욕시의 사업체 유형은 보통 2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발전해오고 있음.



### 사업체 규모 및 고용 인원수에 따른 사업체별 창업 유형 비율



‘소기업 우선(Small Business First)’ 홈페이지

- 총 30개의 세부계획으로 이루어진 이 종합계획은 이해관계자·소규모 사업체 운영주·지역의 리더·지자체장 등과 협의하여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허가행위 및 정보제공 등 사업운영이나 창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온·오프라인에서 해결 할 수 있도록 뉴욕시에서 운영 시스템을 통합
  - 사업체 운영·창업 시 필요한 사전 검열이나 평가 과정에서 규제와 처벌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
  - 서비스 이용시 다양한 언어로 통·번역을 제공
  - 그 밖에도 뉴욕시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잘 소개하고, 각종 제도를 준수하여 규제와 벌금 부담을 감소시키며, 모든 사업자가 평등하게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120-15/de-blasio-administration-small-business-first-reduce-regulatory-burden-cit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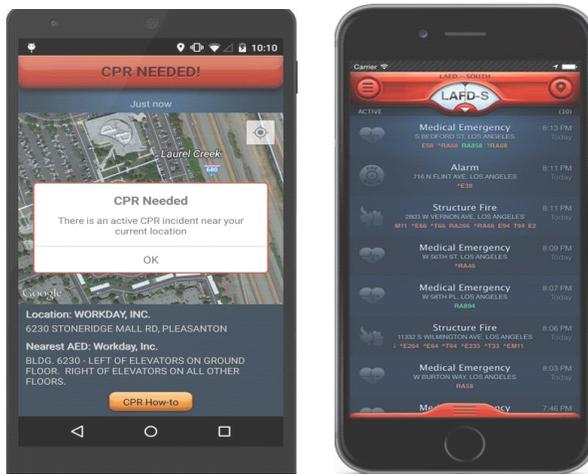
<http://www1.nyc.gov/site/smallbizfirst/index.page>

## 사회·복지

### 심장마비 응급조치에 활용하는 ‘심폐소생술 앱’ 무료 제공

미국 로스앤젤레스市 / 사회·복지

- 로스앤젤레스市는 로스앤젤레스 소방국(LAFD),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와 함께 심장마비에 대한 응급처리를 도와주는 무료 심폐소생술(CP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펄스포인트(Pulsepoint)’를 발표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방법과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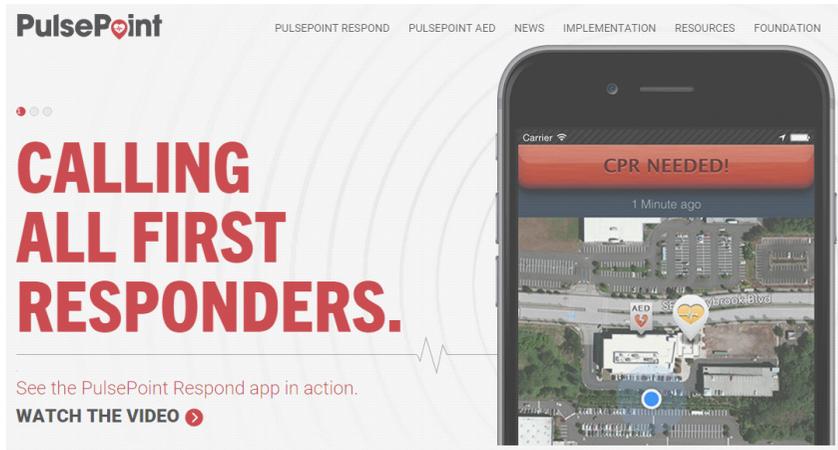


‘펄스포인트’ 인터페이스

이용자가 ‘가이드’ 쉽게 참고할 수 있고 제세동기 위치정보도 담아

- ‘펄스포인트’는 공공장소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소방서와 심폐소생술을 훈련받은 이들에게 동시에 비상 알람을 보내서 인명구조를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임.
- 스마트폰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사용방법이 간단하여 이용자가 쉽게 심폐소생술 단계 가이드를 참고할 수 있음.

- 또한 의료장비인 심장충격기(defibrillator)가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음.
- ‘펄스포인트’로 로스앤젤레스 소방국에 의해 처리된 응급상황 전화정보 열람이 가능하며, 매일 약 1,200통의 전화 중 85%에 해당하는 응급전화가 의료 응급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집계됨.



‘펄스포인트’ 홈페이지

- 로스앤젤레스시는 우드로우 윌슨 고등학교 재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교육구 내 모든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 및 교사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할 예정임.
- 응급상황에서 심장마비 피해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시민이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http://losangeles.cbslocal.com/2015/03/04/app-notifies-users-to-nearby-medical-emergen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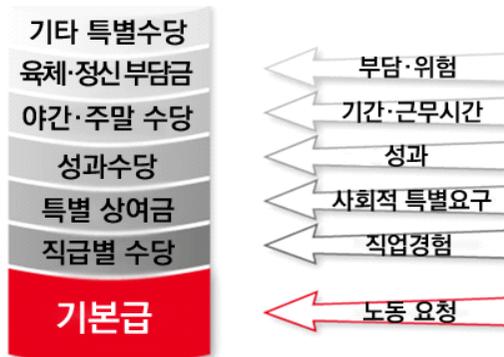
<http://www.pulsepoint.org/pulsepoint-respond/>

# 전국서 “임금 남녀차별 관행 없애라” 대대적 행사

독일 베를린市 / 사회·복지

- 독일 통계청의 통계에 의하면 독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균 임금 차이는 22%인 것으로 나타남. 이를 시간으로 계산해 본 결과, 여성들이 지난해 남성이 받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3월 20일까지 일을 더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옴. 이에 따라 독일 연방 여성부는 올해 3월 20일을 ‘이퀄 페이 데이(Equal Pay Day)’로 지정하고 전국적으로 다양한 행사들을 지원함.
- 사람들은 자신이 받고 있는 보수 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꺼려 함.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자격에 똑같은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실정임. 이것은 기본법의 성의 동등원칙에 모순되는 것을 넘어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문제들을 초래함.
  - 그 원인은 다층적임. 여성들의 직업 선택에서 시작되며 동일 직업 내에서도 보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노인 여성의 빈곤으로 확대될 수 있음.

## 평균 임금, 여성이 22% 적어...‘임금 격차 해소’ 브로슈어도 배포



‘보수평등 검토(eg-check-Verfahren)’ 항목

- 독일에서는 보수 평등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그럼에도 이 규정을 엄격히 지키고 있는지에 관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대안이 ‘보수평등 검토 방식(eg-check-Verfahren)’임.

- ‘보수평등 검토방식’은 독일 평등법과 유럽 보수평등권의 법적 기준에 따라 차별대우의 구체적인 원인과 금전적 범위를 계산하는 시스템임. 이 시스템은 보수의 모든 세부사항을 3단계의 시험 과정에서 검토하고 발생할 수 있는 차별들을 조사함.
- 현재 베를린시는 공공업무 임금 산출에 보수평등 검토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성차별 없는 보수지급에서 솔선수범함. 그러나 독일의 공공업무 협정 임금표가 근본적으로 성차별 없는 노동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체계이기 때문에 시는 연방 반(反) 차별 사무소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임.
- 베를린시는 올해 ‘이퀄 페이 데이’의 테마를 임금 투명성으로 정하고, 노동통합여성국과 각 구의 여성동등사무소 및 독일 여성경영자·전문직 여성협회와 함께 임금 투명성과 여성임금 동등을 위한 브로슈어를 제작함.
  - 이 브로슈어는 여성들에게 일반 경영자들의 관습적인 보수산출의 차별 관행을 알리고 여성들의 노동가치를 계산할 수 있게 하여, 22%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기 위한 것임. 시는 3월 20일 공공기관에 임금 동등을 위한 빨간 기를 달고 시내의 주요장소에서 시민에게 브로슈어를 배포할 예정임.
  - 또한 가게와 레스토랑, 카페 2백여 개가 ‘이퀄 페이 데이’에 동참하여 22% 할인 기획행사를 마련함. 이날 방문한 여성 손님들은 자신이 선택한 상품과 서비스 부문에서 22%의 할인 혜택을 받고, 시가 제작한 쇼핑백을 받아 ‘이퀄 페이 데이’ 홍보에 동참할 수 있음.

<http://www.berlin.de/sen/aif/ueber-uns/presse/2015/pressemitteilung.276029.php>

<http://www.berlin.de/ba-charlottenburg-wilmersdorf/verwaltung/beauftragte/gleichstellung/equal-pay-day/>

<http://www.eg-check.de/html/22.htm>

## 환경·안전

###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치 20% 초과 달성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 환경·안전

- 샌프란시스코시는 2012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배출량의 23%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음을 발표하였으며, 기존 목표치의 20%를 초과하여 감축된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시의 배출량은 1990년 배출량의 14.5% 이하 수준이었으며, 2017년에는 1990년 배출량의 25%, 2025년에는 1990년 배출량의 40% 이하 수준까지 감축할 계획을 발표함.

#### 2025년엔 1990년 배출량의 40% 이하로 온실가스 감축키로

- 샌프란시스코시 환경부가 시행한 배출량 인벤토리에 따르면, 이번 감소량은 도로에서 20만 대의 차량을 없애는 것과 같은 효과인 것으로 나타남.
- 차량의 연료효율 개선과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의 사용 증가가 전체 배출량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립지에서 재활용과 퇴비화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 4% 감소함.
- 이외에도 발전소 2기 폐쇄, 쓰레기 제로 정책(Zero Waste), 그린빌딩조례(the Green Building ordinance) 등이 감축 목표 초과에 큰 역할을 함.
- 시 대중교통 시스템의 절반 이상이 제로배출 전기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100% 재생 가능한 전력으로 운행되고 있음.
- 자전거 레인과 같은 인프라 구축과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한 추가투자로 대중교통시스템을 개선해, 더욱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자 함.



‘클린파워 SF(Clean Power SF)’ 프로그램 홍보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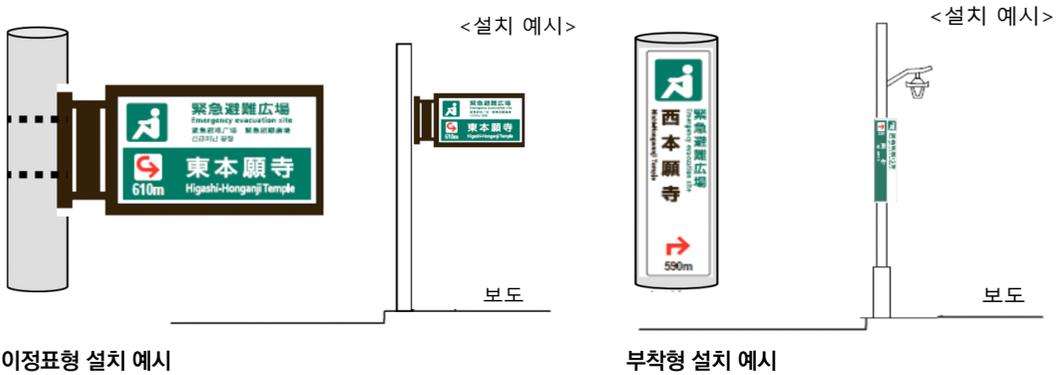
-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이와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샌프란시스코 공공시 설위원회(the San Francisco Public Utilities Commission, SFPUC)에서 클린에너지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발표함.
  - ‘클린파워 SF(Clean Power SF)’ 프로그램은 샌프란시스코시에 재생 가능한 대체에너지를 제공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은 더욱 깨끗한 에너지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환경 및 기후 문제의 해결책으로 ‘클린파워 SF’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에게 전력비를 더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http://www.sfmayor.org/index.aspx?recordid=783&page=846>

# 교토역 주변에 외국인·관광객 긴급피난 유도표지 설치

일본 교토市 / 환경·안전

- 교토市는 일본 최초로 자연재해 발생 시 외국인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특히 2013년 12월에 수립된 ‘교토역 주변 지역 도시 재생 안전 확보 계획’에 근거하여 자연재해 발생 시 관광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시적인 체류 장소의 지정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자연재해 발생 시 다언어로 일시체류 장소 등 알려줘

- 2015년 3월 18일, 교토市는 ‘교토역 주변 지역 도시 재생 안전 확보 계획’에 따라 외국인과 관광객을 위해 교토역 주변의 전봇대 및 가로등에 대피 유도 표지를 설치함.

설치 장소 / 기간	· 교토역 주변 10개소 / · 3월 23일~ 26일
표지의 내용	(1) 게재 내용 긴급 피난 광장을 보여 주는 픽토그램 / 긴급 피난 광장의 명칭 / 긴급 피난 광장까지 거리 및 방향 (2) 다언어 표기 ① 이정표형 : 4개 국어(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② 부착형 : 2개 국어(일본어, 영어)

<http://www.city.kyoto.lg.jp/tokei/page/0000180065.html>

<http://www.city.kyoto.lg.jp/tokei/cmsfiles/contents/0000180/180065/kouhou.pdf>

## 도시교통

### “교통사고 예방에 의문”...교통 단속카메라 단계 철거

미국 시카고市 / 도시교통

- 시카고市 램 이매뉴엘(Rahm Emanuel) 시장은 교차로 174곳 중 25곳에 설치된 교통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50대를 철거할 계획을 발표함, 또한 처음 교통신호를 위반한 사람한테는 한 해 약 11만 3,000원에 달하는 벌금을 면제해 주는 대신 온라인 교통수업을 수강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교통신호 처음 위반자엔 벌금 대신 온라인 교통수업 추진

- 시카고시는 최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과 발생률이 낮은 지역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철거할 계획임. 단속카메라 50개를 철거하여도 시카고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단속카메라의 개수는 300개 이상으로, 미국 내 최대 규모로 자동화된 교통위반 단속 프로그램을 가진 곳으로 손꼽힘.
- 최근 일련의 연구들에서 시카고 시내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들이 실질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거나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오히려 추돌사고의 증가 원인이 된다고 주장함.
  - 한 조사에 의하면 비교적 위험한 티(T-bone) 부상 추돌사고가 15% 줄어든 반면, 후면추돌 사고는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여론에 따라 시장은 단속카메라 감축계획은 시행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원활한 교통의 흐름 및 교통안전을 위해 보행자 카운트다운 타이머(countdown timer) 설치를 서두를 계획임을 밝힘.

<http://www.chicagotribune.com/news/local/breaking/chi-chicago-red-light-cameras-20150308-story.html#page=1>

## 도시계획·주택

### 공공조명 혁신사례 체험 ‘LED 조명 전시거리’ 개장

독일 베를린시 / 도시계획·주택

- 베를린시는 3월 5일 베를린 기술박물관(Berliner Technikmuseum)에 ‘LED 거리(LED Laufsteg)’라는 조명 전시길을 개장함. 이 전시길은 인공조명의 혁신 가능성과 LED 외부 조명의 다양한 적용기술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마련됨.
- 지난 100년간 베를린시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으로 빛 공해가 심각해졌으며, 에너지 소비도 막대하였음. 유네스코가 정한 ‘2015년 세계 빛의 해’를 계기로 베를린시 관리공단·베를린 공과대학교·베를린 기술박물관은 ‘LED 거리’ 프로젝트를 추진함.



‘LED 거리(LED Laufsteg)’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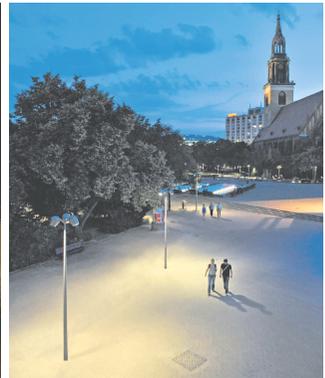
### LED 조명의 다양한 적용기술 보여주는 실험장

- 앞으로 도로조명은 맞춤형으로 정확히 계산되어 분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미래의 도시 공공조명은 지면과 대상만 비추고 빛은 식별과 조형적 의미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임.
  - 베를린 공과대학교 빛 기술학과는 이러한 개념에 입각해 지능적이고 적용 가능한 LED 조명 모델을 만들고, 시와 유럽연합 지역발전기금의 재정지원을 받아 베를린 기술박물관의 도로에 설치하게 됨.

- 'LED 거리'는 방문객들이 새로운 빛과 에너지 절감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체류의 질을 체험할 수 있게 조성됨.
  - 도로와 인접해 있는 강변 및 공원에 서로 다른 높이의 3개의 전주가 설치되었으며, 1.5km의 길에는 40개의 가로등과 70개 이상의 전구가 설치되었음. 이를 통해 상이한 교통상황과 다양한 빛 콘셉트, 색온도를 접하면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줌.
  - 설치된 인포박스와 스마트폰 앱은 LED 조명의 부가가치에 대해 안내해 줌.
- 전시길은 24시간 가동되며 광학 및 조명 전문가들과 일반시민, 관광객, 학생들의 단체방문도 환영함.



옛 가스가로등의 형태를 보전한 LED 가로등



혁신적 기술이 도입된 도시조명

### 가스가로등, 보존가치 3,300개 빼고 모두 LED등으로 교체

- 현재 도시는 소음·먼지·교통뿐만 아니라 빛으로 인한 공해도 심각한 수준임. 거리의 과도한 조명과 간판/광고 조명의 남용으로 시민들은 피로를 느끼고 있음. 또한 빛의 각도가 길을 비추기보다 가로수나 건물, 심지어는 하늘로 향하면서 빛의 소모도 심각한 실정임.
  - 독일에서는 그동안 생태보호의 관점에서 인공조명의 부정적 측면들을 밝혀내고 밤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일어났으며, 교통의 관점에서 인공조명이 유발하

는 눈부심 효과·대비 현상·시각 부적응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높아졌다는 지적이 일어남.

- 또한 어둠과 불안심리, 그리고 범죄발생 간 연관성도 다각적으로 연구됨. 인공조명이 많다고 해서 안전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옴.
- 베를린시의 중심 대로에는 1930년대와 1950년대에 만들어진 가로등이 아직도 사용되고 있으며, 옛 건물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36,400개의 가스등이 여전히 사용 중임. 이러한 가로등의 보수와 에너지 비용으로 시는 2014년 3,590만 유로(약 433억 원)를 지출함.
- 베를린시는 에너지 효율과 기후 보호의 관점에서 2011년 수립한 LED 조명과 빛 기술 혁신을 중점으로 하는 도시 빛 계획에 따라 지난해부터 공공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기 시작함.
  - 일부 산책로와 대로에는 움직임 감지 신호기를 통해 움직임에 반응하고 빛을 면밀히 계산하여 비추는 가로등이 설치됨.
  - 오랜 역사를 지닌 가스가로등의 애호가들을 위해 옛 가스가로등 형태를 보존하면서 LED 조명으로 해결 가능한 방안도 발전시킴. 이에 따라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가스가로등 3,300개를 제외한 가스가로등들은 현대화 계획에 착수함.

[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503/nachricht5504.html](http://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1503/nachricht5504.html)

<http://www.led-laufsteg.de/>

<http://www.jahr-des-lichts.de/led-laufsteg/>